
2021년 제3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8. 6. ~ 8. 1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8. 6.	시청률	0.004

【총 평】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기대를 모으는 갯벌의 재조명, 무질서에 대한 환경고발과 캠페인, 코로나19 위기와 상생 미담,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아이템 등 다양한 소재로 볼거리와 이슈를 제공했다. 특히 '생태계 보고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신안 갯벌의 모습을 밀착 촬영한 영상미가 돋보였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낸 기획력이 탁월했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불법주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자세히 소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구성 및 내용】

'생태계보고 갯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을 소개하고 그 중 가장 면적이 큰 신안을 찾아 갯벌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생물인 흰발농게를 비롯한 짱뚱어, 백로 등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뛰어난 영상미로 표현했다. '갯벌은 삶 그 자체'라는 인터뷰와 갯벌에서 물고기를 잡는 삼강망어업 등 다양한 모습을 잘 담았다.

'코로나19 위기 속 상생의 기부'는 생필품과 음식을 기부하는 주민들의 온정이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희망의 숨통이 되고 있다는 미담으로 뉴스를 밝게 했다. 경남 거제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수양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희망 나눔 공간' 냉장고에 기부하는 모습을 소개해 기부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 위험'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잘 담았다.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의 견인구역 안내와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마다 7백원) 등을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지난 1603회 '전동 킥보드 안전모 의무화 외면'에 이어 연속 고발한 점이 돋보였다.

'탄광 강제 노역 증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다룬 시의성이 우수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3만 3천여 명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이번에 서울시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담은 전시회가 열렸다. 특히, 일제의 만행을 부각한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했다.

'솔뫼성지,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으로 우뚝'은 충남 당진군에 있는 솔뫼성지에 들어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을 소개했다. 올해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와 14일부터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를 소개했다. '공항으로 피서 가요'는 최근 폭염으로 노인들이 인천공항으로 피서를 가는 모습을 담아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사회현상과 환경문제, 방역문제까지 언급한 점이 우수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8. 6.	시청률	0.013

【총 평】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붐을 일으키고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총 6개 추진전략은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특히 '도전! K-스타트업' 사업은 우리의 기술을 보고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도전의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관련 미국 각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WHO가 추가 접종을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델타 변이 확산 소식 등을 전했다.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특히 총 6개 추진전략을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2배 이상 확대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통합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창업친화적 제도 개편 등 창업환경을 개선한다.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업력 기준도 확대한다.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을 위해 팀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 등을 활용한 민간 주도 + 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کم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를 위해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스타트업이 정책·기술·시장 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1. 8. 6.	시청률	0.027

【총 평】

KTV 대한뉴스 주요 내용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을 비롯해 접종률 40%...9일부터 사전예약 10부제, '백신 맞고 사지마비'...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경상수지 14개월째 흑자...상반기 흑자 5년 만 최대 등이었다. 이 밖에 정부, 아프리카 5개국에 12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문체부, 공연예술분야 2천 명 채용 지원 등을 보도했다. 특히 뉴스 구성이 시의성과 이슈 안배, 주제 흐름, 코너 배치, 적절한 자막 등 완성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며 신뢰감을 주고 있다.

S&News는 '변동금리 쏠림' 현상과 우리 기업 문화에 불고 있는 'ESG' 바람, '해수면 상승' 등을 전해주었고, 뉴스링크는 '델타플러스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은 아니며 과도한 우려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클릭K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에 관한 소식으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2주 연장' 방역수칙 조정방안 정책과 백신접종률, 백신 사전예약제에 대해 전했다. 또 백신 맞고 사지마비가 된 간호조무사의 산재를 인정한다는 코로나19 소식을 비중있게 전달하였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거리 두기에 관련한 숙박 시설 이용시 실시간 예약을 꼭 확인할 것에 대한 정보는 시의성에 부합했다.

'접종률 40%...9일부터 사전 예약 10부제'는 9일부터 실시되는 사전 예약 10부제 운영 계획과 예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질병관리청이 당부한 '스미싱 사기 주의 당부' 전달 등 경각심을 촉구했다. 폭염 속 소방현장 방문...'폭염·코로나 대응' 격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소방서 방문 행보를 보도했다. 소방청이 전국에 코로나 의료진에게 회복지원 차량 쉼터를 제공한 점을 집중보도 했다. 정부, 아프리카 5개국에 12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은 최근 식량 위기가 심각한 아프리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 협력 방안 논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한미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는 한미 외교장관의 통화 뉴스는 대북관계의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경상수지 14개월째 흑자...상반기 흑자 5년 만에 최대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까지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상반기 경상수지는 모두 443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최대 흑자라는 경제 뉴스도 코로나 블루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뉴스였다.

"올림픽육상 7종 경기에 나선 영국의 존슨통슨 선수는 달리다 종아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 휠체어도 거부하고 전진한 93초!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마무리 멘트가 훈훈한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8. 7.	시청률	0.253

【총 평】

‘꽃이랑 살아요 개평마을 똑순이’편은 경남 함양군 개평마을로 귀촌해 압화카페를 운영하며 야생화로 산수화 작품을 제작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재능도 기부하는 귀촌 9년차 50대 주부의 산촌일기를 그렸다. 산촌 주말부부의 소확행, 자신의 꿈을 이루며,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 등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마을주변 야생화를 채취해 산수화 압화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삼목 교육을 하는 일상이 그려져 메시지 전달력이 살아났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로 개평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알림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정을 나누는 스토리가 귀촌 성공의 비결임을 알린 구성이 유의미했다. 지리산 자락 하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남편과 주말에 만나 식사와 대화를 나누는 애뜻한 일상이 소확행의 참뜻을 일깨웠다.

【구성 및 내용】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 함양 개평마을이다. 선비들의 글을 읽던 고택이 지금은 현대인들의 삶터가 되었지만 오래전 기와지붕 너머로 글 읽는 선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마당 한쪽에는 난초가 자랐을 한옥의 아름다움과 선비문화의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개평마을은 한국관광공사와 농촌 진흥청이 선정한 코로나 시대 떠나기 좋은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다. 덕유산과 지리산의 줄기에 자리 잡은 함양은 좌 안동 우 함평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대 있는 마을의 상징이다.

8년 전 거제도에서 개평마을의 꽃들에게 반해 귀촌한 주인공은 압화를 배울 수 있는 카페를 맡고 있다. 마을에서 얻은 꽃들을 활용해 압화작품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으로 2015년에는 압화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00년이 넘는 고택과 흙담에 꽃이 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주인공은 압화 작가로 고택과 야산에 핀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을 담아내고 있다. 꽃누르미(압화) 작가의 꿈을 펼치고 사는 50대 주부의 이색 소재가 관심을 유발했고 야생화 채취와 꽃누르미 작업 등 압화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개평마을에서는 농업,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돌봄,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거제도에서 개평 마을로 귀농한 주인공은 마을에 치유의 돌봄의 씨앗을 심고 싶다며 마을일에 늘 앞장서며 개평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 압화 수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식물을 키우며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운치있는 양반의 고장 함양 고택의 정취와 그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9년차 귀촌 주부의 일상과 소확행을 통해 삶의 질과 힐링을 일깨웠다. 또 시원한 지리산 계곡물, 뭉게구름, 들꽃, 여름채소 모듬전 등 산촌의 아름다움이 시청자의 힐링을 도왔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8. 8.	시청률	0.001

【총 평】

북한의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공공연히 신체적 문제를 노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담화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여정 부부장의 행보를 통해 “김남매가 왜 그럴까?”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붙여 무거운 주제를 흥미롭게 접근했다.

최근 공식 석상에 파스를 붙인 모습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건강이상설 등 여러 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만의 통치스타일을 분석해 보았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라며 한반도 혼풍에 찬물을 끼얹은 김여정의 담화문에 대한 배경분석을 통해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함과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분석해 공감성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파스를 붙인 모습을 공개하며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건강 이상설 등 여러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심을 이끌었다. 김정원 위원장의 후두부에 반창고 같은 것을 붙인 모습이 7월 30일 북한 관영매체에서 공개되었다. 이런 모습의 노출이 건강 이상설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후 7월 28일 북중 우의탑 헌화 참석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아 심각한 건강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인다. 특히 전대 지도자들은 사망 직전까지도 건강 이상 유출이 거의 없었다. 몸의 사소한 문제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을 공개해 북한의 속내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분석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은 약 2주간 실시되는 훈련으로 10만 여명의 한국군과 미국군이 참여한다. 축구장 3배 크기의 항공모함과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투입해 육해공 해병대 방어 훈련은 물론 북한에 대한 공격 훈련까지 실시한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일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정과 행복이 우선이며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

‘이슈 텔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인민 배우 띄우기에 나선 북한 당국의 속내와 북한의 음악 정치 이야기를 소개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음악정치를 강조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그 돌파구로 음악 정치에 나선 북한,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겸비해서 가장 전형적인 북한의 창법을 구사하는 김옥주의 시대가 왔고 북한의 인민배우 칭호는 우리나라 차관급, 북한의 부부장급에 해당한다. 북한 전통 창법 스타일이 대세인 이유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속내도 있다는 분석이 음악 정치의 속내로 비춰졌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8. 8.	시청률	0.005

【총 평】

‘2021 하반기부터 달라진 실생활 정책’편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취지, 개선점, 달라진 제도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분석한 기획이 탁월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이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현장중심으로 취재한 구성이 돋보였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 한의사도 집으로 찾아가는 한의 왕진 의료보험 수가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득이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비롯해 한의 왕진 의료보험 수가 적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이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한 착오송금건수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착오송금의 경우 돈을 반환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자의로 돌려주는 것이며, 이 경우가 힘들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게 따로 연락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2020년의 착오송금의 50%정도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추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소액의 경우에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지난달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어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의학은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다. 폭염과 폭설 등의 이유로 인해 노인들이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왕진 서비스가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지마비, 인공호흡기 부착 등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2019년 처음 이뤄진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한의학으로도 확대되었다. 한의사 입장에서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방문진료의 경우 의료비지원으로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6월 1일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번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주요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임대차 신고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